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씀: 사도행전 4:1-31

요절: 사도행전 4:20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3 장을 공부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고치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한 후에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오순절 성령강림과 함께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전한 설교로서 이 때 약 3 천명이 믿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3장에 나오는 솔로몬 행각의 설교로서 오늘 말씀 사도행전 4 장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끝나고 일어난 사건의 기록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사도들에게 박해가 시작되었다는 점과 사도들에게 핍박이 임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욱 활발하게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해 보면 성령이 임하시자 사도들에게는 핍박이 찾아 왔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에게 임한 핍박은 복음역사를 더욱 왕성하게 일으키는 역할을 하였고, 1 세기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안디옥과 주변 여러 지역으로 번져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들로 부름 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본문 사도행전 4 장 1~5절은 사도들에게 박해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다 같이 1,2 절을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말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1,2)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어떤 설교를 하였습니까? 베드로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이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하면서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증거 했습니다. 베드로는 성경을 인용하여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야가 곧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택한 백성들이었다면 그들은 마땅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통회하며 회개해야 하였습니다. 특히 그곳에 있던 제사장들과 성전 말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2) 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장차 올 부활과 심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관과 소망은 당연히 세상과 이 땅의 것들에 있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요 그들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생활에서도 교권을 장악하고 부를 누리며 세상 정치가들과 다를 바 없는 방법으로 당시 유대교의 교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그토록 싫어한 이유는 부활이 없다는 교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바는 부활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과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는데 베드로가 부활을 가르치고 전하니 싫은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모든 사람이 이를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 성전 말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싫어하였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얼굴이 굳어지고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동안 천국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셨을 때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고자 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3 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을 잡으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3) 종교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견지 못한 이를 낮게 한 때가 오후 3 시였는데, 날이 저물었을 때가 6 시쯤 되었기에 그들이 병자를 고치고 3 시간 만에 옥에 갇힌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자 즉시로 찾아 온 것이 옥에 갇히는 박해였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복음 증거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만사형통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할 때 반드시 핍박과 환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막 13:9),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 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 가려니와”(눅21:12)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에게 임한 핍박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핍박한 무리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긍지가 강한 믿는 성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주의 종들이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핍박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핍박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교회사를 보면 항상 박해는 교회 내에서, 믿는 자들로부터, 종교지도자들로부터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3 차에 걸친 선교여행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을 핍박한 무리들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바로 동족 유대인 신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들이 박해를 받은 이유가 교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교권을 장악한 세력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자들이 전한 부활의 진리를 자신들의 사두개파 교리의 잣대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교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 교회사를 살펴보면 교리 때문에 박해와 수난이 반복되었고 교회의 분열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유대인들은 교회에서 출회시키고,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단인 예수교 장로교단을 보면 미국 프린스턴신학교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김재준 목사님의 영향으로 1940 년 기독교 장로교단이 분리되었고, 1959 년에는 예수교 장로교단이 WCC 가입문제로 통합과 합동으로 분리되면서 현재는 약 200 여 교단으로 나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교회는 교리 때문에 심한 갈등과 분열의 진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교리란 인간이 만든 이론 즉 신학자들의 주장으로서 시대가 변하면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리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는 수단일 뿐이지 온전한 진리는 예수님 한 분 뿐이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방언을 하면 이단으로 정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방언한다고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 교회사를 보면 인간의 자유의 지라는 교리문제로 알미니안 주의와 칼빈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왔는데, 요즘은 그러한 구분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리의 잣대로 형제를 판단하고 배척하며 이단으로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임을 인정하고 서로를 용납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같이 4 절을 읽겠습니다.

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더라”(4) 여기서 말씀을 들은 사람이란 베드로의 설교를 행한 설교를 들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메시지가 귀에 거슬리고 거부감이 들어서 싫어하였던 반면에, 똑 같은 설교인데 듣고 믿은 사람이 남자의 수만 약 5,000 명이나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흥왕한 복음역사가 있는 곳에 박해와 환난이 같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사역에 늘 핍박을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쓰시는 사람들에게 항상 핍박과 환난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선지자들이 그랬고, 또한 사도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마5:11,12)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백성에게도 이러한 환난과 박해를 많이 주셨습니다.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옥중에서 순교하신 주 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믿음의 선배들이 일제하 순교의 피를 뿌렸습니다. 손 양원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주의 종들이 공산치하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결과 한국백성은 21 세기 제사장 백성으로서 오늘날 세계선교의 선봉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 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고 이 사무엘 선교사님은 일생동안 이러한 박해와 시련을 겪으셨습니다. 초기에는 미국 선교부로부터의 박해가 있었고, 이어서 기성교단의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로부터 배척을 받아야 했고, 선교지에서는 기독교 deprogrammer의 박해와 공격을 받았습니다. 임 마리아 사모님의 큰 오빠인 과테말라 강 노아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 분은 시골집에서 유일하게 대학에 들어와 집안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임에서 복음을 영접하고 목자의 인생을 살고자 결단하자 집안에서 부모형제들로부터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 한 사람이 핍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마리아 사모님의 형제들 중에서 다섯 가정의 선교사 가정이 탄생하여서 한국을 비롯하여 호주와 미국, 중국, 과테말라, 일본, 러시아 등 세계 각 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5~7a절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

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5~7a) 그 다음날 날이 밝자 베드로와 요한을 심문하기 위하여 유대교 거물급 지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한 번 보십시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장차 임하게 될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막 13:9) 겉으로 보기에 유대 종교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심문하고 박해하는 자리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 토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대 종교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심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7b 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7b) 즉, 그들의 말은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허락을 받고 나면서 못 견뎌 된 이를 고쳤으며, 또 무슨 자격으로 설교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유대교 종교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허락하지도 않은 일을 제자들이 임으로 행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종교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환자가 나음 받은 사건이나 하나님의 말씀진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권위와는 무관하게 사람의 병을 고친 사건과 자신들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행위를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영국과 유럽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자 기존 교단들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을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세운 미국 청교도 신앙의 조상들은 영국과 유럽 교회들의 박해를 피하여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나선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 UBF 초기역사 역시 기성교단의 박해 가운데서 세계 선교를 감당해 온 역사였습니다. 신학교도 나오지 않은 자들이 왜 성경을 가르치느냐? 목사 안수도 안 받은 자들이 왜 설교는 하느냐? 교단의 허락도 없이 왜 예배를 보느냐? 무슨 자격으로 선교사를 보내느냐? 하나님은 이런 핍박 가운데서 놀라운 세계 선교 역사를 줄기차게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 모임이 한국교계에서도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목사안수와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등 목자들의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주위로부터의 핍박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가 더욱 영적 위기의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기독교회 역시 시간이 흐르고 전통과 권위를 앞세우다 보면 교회가 기득권을 주장하며 교권주의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교권주의에 물들게 되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영적 지도자들이 이러한 교권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면 양들 위에 군림하려 하고 목자의 권위를 앞세우느라 예수님을 배우지 못합니다. 8~12절은 베드로가 유대 종교지도자들이 운집한 자리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이러한 때를 대비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 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막13:11) 그러면,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증거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다같이 8b~12절을 읽겠습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8b~12)

첫째, 성령께서는 베드로의 입을 빌어서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의 문제를 책망하셨습니다. 8b 절과 9 절을 보십시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8b,9)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양 무리의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양들이 병들고 주리는 모습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양들의 고통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날 때부터 건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구원과 영적인 구원만큼 더 절박하고 시급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을 받았다는 사실을 들었다면 그리고 보았다면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소리쳐 물어보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양 무리의 목자요 백성의 지도자인 그들은 교권주의 즉 유대교의 권위와 전통에 사로잡혀서 양 무리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무관심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고 자격문제를 따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양 한 마리가 평생 동안 고통 하던 질병에서 나옴 받은 사건보다 그들의 종교적 기득권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 세상만민이 구원을 얻고 복을 받도록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고, 선지자들을 주셨고, 이방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에 안주하고 교권주의에 사로잡혀서 양 무리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무관심하였습니다. 성령님은 이런 그들의 문제를 베드로의 입을 통해 책망하셨습니다.

둘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가 건강하게 되었음을 증거 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10)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사람을 건강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 저주와 운명, 고통과 슬픔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에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당할 저주와 운명, 슬픔과 고통 때문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당해야 할 징계와 아픔, 진노와 심판을 인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통 속에 운명하셔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셨고 모욕을 받으셨으며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사53:5) 의과대학 4 학년 벚꽃이 흐드러지게 만개한 날에 저는 만성간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4 학년 임상실습 중이던 학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의 오른쪽 옆구리에는 굵은 바늘이 들어가고 간조직을 떼어내는 시술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병실 복도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수 개월간의 병상생활 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고 인턴생활과 군복무, 산부인과 수련과정에 이어 교수로서 지내오면서 건강문제는 항상 저에게 육신의 가시가 되었습니다. 건강문제는 사냥꾼의 올

무에 매인 새와 같이 저의 삶의 멍애가 되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십자가에 달려서 창에 찔리시고 가시 면류관에 찔리시고 못박혀 운명하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절고를 인하여 눈물 흘리시고 신음하시고 내 대신 담당하신 고통이심을 바라볼 때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지난 인턴생활과 특공연대 군의관 생활을 승리한 것을 감사합니다. 밤잠 못 자던 산부인과 전공의 과정을 이겨낸 것을 감사드립니다. 교수로서 지난 25 년 동안 건강을 지켜주신 것과 15 년 동안 7부 사역을 섬기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앞으로도 저를 건강하게 하실 것을 믿고 찬양합니다.

셋째, 시편 말씀을 인용함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것을 말했습니다. 다같이 11절을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11) 베드로는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함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요 메시아이심을 증거 했습니다. 여기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모퉁이의 머릿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정작 자기백성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그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리라는 말씀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한 그리스도를 세상 만민의 구원을 위해 모퉁이 돌로 사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오실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깨닫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사8:14)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그들의 눈이 닫혀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배척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비밀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을 로마서에서 이를 가리켜 신비로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총만**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롬11:25,26a)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가리심으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눈을 가리심으로 복음이 이방으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스라엘과 이방인 즉, 세상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지혜요 경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오순절 성령강림의 때 함께 기도하던 유대인들은 120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이방 각지에서 모여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영접한 수가 남자만 약 3,000 명이었습니다. 이때 복음을 영접한 3,000 명은 이방 각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서 복음을 영접한 후 각각 다시 자신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못 걷는 이를 낫게 한 사건 이후에 솔로몬 행각의 설교를 듣고 믿은 자가 남자만 약 5,000 명이었습니다. 이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 장에 보면 스테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하였습니다. 박해가 성도들을 사방으로 흩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 선교가 시작됩니다. 사도바울이 이방인의 선교를 시작하면서 마침내 유대인들을 통한 이방인 선교는 끝나고, 이방인들에 의한 이방선교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복음전파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멈추게 됩니다. 이제 복음역사는 사도바울을 중심으로 이방세계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AD 313 년 로마가 국교화 되고, 기독교는 유럽을 중심으로 전파되다가 1517 년 종교개혁 이후 복음은 영국과 유럽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아시아 특히 한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12,000 여 종족이 있는데, 이 중에서 미전도 종족이 약 3,000 여 종족이 된다고 합니다. 이들 3,000 여 종족은 주로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권에 속해 있습니다. 선교학자들은 이 시대가 이방인 선교의 마지막 때라고 하며, 마지막 때의 선교주자로서 한국을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백성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복음역사에 쓰시기를 기도합니다.

넷째,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증거 했습니다. 다같이 12 절을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12)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 외에 그 무엇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음을 대적하는 행위이자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오늘날 예수 이름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상이 바로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다원주의를 불신자들이 아닌 기독교 교회들이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추종하는 교회들의 모임을 WCC(World Council of Churches)라고 하는데, 전 세계 기독교의 80 %가 여기에 속하여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성공회, 감리교, 루터교, 오순절 교회, 기독교 장로교뿐만 아니라 예수교 장로교의 일부 교회들마저 이곳에 가입하여 2013년에는 한국에서 세계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불교나 힌두교, 이슬람교, 도교에도 구원이 있으며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인권을 강조하고 인본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동성연애와 동성결혼도 허용합니다. 오늘날 가장 심각한 복음의 대적이 바로 종교 다원주의인데,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종교 다원주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의 뿌리는 바로 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지금부터 200 년 전 칸트와 헤겔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 자유주의 신학사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사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계명에 대한 불신앙인 것입니다. 십계명에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들을 통해서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계명에는 동성애가 가증한 죄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복음전파 곧 세계선교의 명령을 주셨는데, 이들은 선교의 개념을 Missio Dei라고 해서 전혀 다른 의미로 변질시켜버렸습니다. 종교다원주의의 본질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경홀히 여기며 거역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요 생명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 얻을 이름임을 믿고 이 복음을 세상 만민에게 증거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3~22 절에서는 종교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더 이상 복음을 증거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7 절에 보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도록 함이 목적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유명한 표적 행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 경고하기를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 샅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위치가 위협을 받을까 염려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믿고 진리를 알게 되면, 자신들의 거짓됨이 들어날까 두려웠습니다. 종교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영화를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생계가 걸린 문제요 생활의 안정과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목회사역과 설교하는 일이 생계와 직결되고, 자신의 신분, 경제적 상황과 연결되어 있으면 진리 앞에서 타협하기 쉽습니다. 이런 설교를 해서 성도들이 목회자를 배척하지나 않을까 타협하게 됩니다. 진리 편에 섰다가 자신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지나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단 시비를 일으키는 이유가 바로 자신들의 교회에서 성도가 이동해 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진리 편에 서지 못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18~20 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18~20)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신에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유대교의 전통과 유전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육신의 소욕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으며, 세상 가치관

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마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사도들을 박해하는 복음의 원수 노릇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핍박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담대히 증거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20)고 하였습니다. 그들을 박해하고 위협하는 종교지도자들의 훼방이 그들의 복음증거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생명의 위협도 그들의 복음증거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핍박 앞에서 더욱 강해졌고, 성령이 충만하였으며, 담대한 복음증거자들이 되었습니다. 21 절에 보면 관리들은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동료들에게 가서 모든 일을 알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였습니다. 23~30 절은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다 같이 31절을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31)

이상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의 복음전파와 함께 박해가 시작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전파는 성령의 역사이며 동시에 핍박이 따른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시며, 박해를 통해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믿음을 깨우시고 복음의 증거자들로 세우고 계십니다. 신앙의 시련과 핍박이 없으면 영적으로 잠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박해와 시련, 어려움과 핍박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깨우시고 이 시대 복음증거자들로 살도록 도우십니다. 때로는 교회로부터의 핍박이 있고, 때로는 사랑하는 동역자나 부모형제로부터의 핍박이 있습니다. 건강이나 물질문제, 가정의 어려움이 우리를 괴롭히는 가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게 하시며 우리를 복음의 일꾼들로 계속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이신 세상 만민 구원역사에 부름 받은 자들로, 또한 부름 받은 민족으로서 마지막 때의 복음의 제사장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